

건설업 취업자 2%대 증가, 속련 인력 임금 3%대 상승 전망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20 12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0.2% 증가한 67.4조원이고, 하반기에는 2.5% 증가한 8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현재 181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 들어 대체로 7.2%에 머물고 있다. 대체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와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0.2%로 미미한 데 비해 취업자 수는 3.2%로 크게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

이고 있다. 취업자 증가 요인으로 지적되는 해외건설 호조에 따른 해외 전문가 고용, 도시형 생활주택 급증, 지방의 아파트 공급 증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자 수의 증가폭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능인력 고령화 가속화

2011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60.1%인 것에 비해 건설 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7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12년 사이 12.6%p 증가하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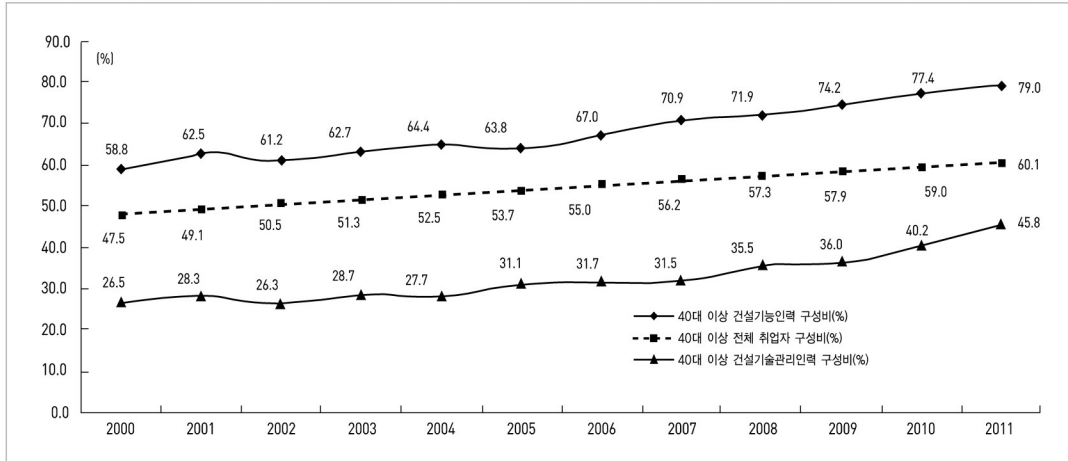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투자 추이

(단위: 천명, %, 조원)

| 항목 | 시기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 취업자 | 전(全) 산업 | 23,577 | 23,506 | 23,829 | 24,244 | 23,732 | 23,783 | 24,265 | 24,758 | 25,133 | 25,117 |
| | 건설업 | 1,812 | 1,720 | 1,753 | 1,751 | 1,719 | 1,690 | 1,744 | 1,787 | 1,819 | 1,815 |
| | 건설업 비중 | 7.7 | 7.3 | 7.4 | 7.2 | 7.2 | 7.1 | 7.2 | 7.2 | 7.2 | 7.2 |
| | 전년 동기비 증감률 | -2.0 | -5.1 | 1.9 | -0.1 | 5.3 | 4.2 | 4.4 | 3.0 | 1.8 | 0.7 |
| 건설투자(2005년 불변가격) | | 153.9 | 159.2 | 153.4 | 145.8 | 67.4(상반기 전망치) | | | |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2.8 | 3.4 | -3.7 | -5.0 | 0.2 | | | | | |

주 : 2012년 건설 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주 : 기능 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기술관리 인력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반적인 고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건설 기능인력은 20.2%p나 증가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기능 인력의 숙련 형성에 약 5년 정도 소요되고 건설 생산물의 품질이 숙련 인력의 근력에 기초한다. 따라서 기능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는 숙련 인력의 단절과 생산 기반의 붕괴를 알려주는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준거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 노임단가' 자료에는 117개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9%, 그리고 하반기에는 6.2% 상승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인부의 임금은 7만

2,41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의 평균 임금은 10만 1,314원으로 2.6% 상승했다.

임금 동향을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1년 9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2만 6,924원)이고 그 뒤를 타일공(11만 5,534원), 철근공(11만 4,884원), 형틀목공(11만 4,466원), 조적공(10만 9,297원) 등이 있고 있다. 1년 간의 직종별 일일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도장공의 경우 13.5%가 올라 1만 2,611원이 상승했고, 형틀목공의 경우 9.7%가 올라 1만 158원이 상승했으며, 타일공의 경우 9.4%가 올라 9,923원 상승했다. 반면, 방수공의 경우 0.7%가 감소해 566원이 하락했다.

건설업 취업자 2%대 증가 예상

건설업 취업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건

특집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2012년 하반기 건설 기능인력 수요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천명, 원, %)

| 구분 | 2010년 | 2011년 | | | 2012년(e) |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합계 | 상반기 | 하반기 | 합계 | |
| 건설투자 | 153.4 | 67.3 | 78.5 | 145.8 | 67.4 | 80.5 | 148.0 | |
| 인력 수요 | 건설업 취업자 | 1,753 | 1,708 | 1,794 | 1,751 | 1,764 | 1,831 | 1,798 |
| | 건설 기능인력 | 1,253 | 1,221 | 1,282 | 1,252 | 1,234 | 1,304 | 1,269 |
|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 숙련 인력 | 100,605 | 103,785 | 107,563 | 105,674 | 107,729 | 111,005 | 109,367 |
| | 비숙련 인력 | 71,456 | 74,008 | 75,608 | 74,808 | 76,080 | 77,649 | 76,865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 | | | | |
| 건설투자 | -3.7 | -7.1 | -3.0 | -5.0 | 0.2 | 2.5 | 1.5 | |
| 인력 수요 | 건설업 취업자 | 1.9 | -1.3 | 1.0 | -0.1 | 3.3 | 2.1 | 2.7 |
| | 건설 기능인력 | 5.8 | -1.3 | 1.0 | -0.1 | 1.1 | 1.7 | 1.4 |
|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 숙련 인력 | 2.2 | 3.9 | 6.2 | 5.0 | 3.8 | 3.2 | 3.5 |
| | 비숙련 인력 | 4.4 | 5.0 | 4.4 | 4.7 | 2.8 | 2.7 | 2.7 |

주 : 건설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일일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 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의 평균 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2012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투자가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에 그치나 하반기에는 2.5%로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투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나 변동 폭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취업자 수와 임금이 모두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인 변수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책이 강화 될 것이고 임금에 대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지면서 그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2.1% 증가한 183만 1,000명, 그리고 기능 인력 수는 1.7% 증가한 130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망할 경우 2012년 연간으로 보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179만 8,000명에 이르고, 기

능 인력 수 역시 1.4% 증가한 126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숙련 인력 임금 3%대 상승할 듯

기능 인력의 임금(하루 8시간 기준)은 2012년 상반기에 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0만 7,729원이 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2.8% 증가한 7만 6,08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고령 화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수는 감소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임금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의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 오른 11만 1,005원이 되어 3,442원 인상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2.7% 오른 7만 7,649원이 되어 2,041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CERIK